



17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번폴리 참여 건축가들이 자신의 설계안을 발표했다. 제4회광주비엔날레 기간에 광주 도심 10곳에 한국의 전통 문화와 5·18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이색 건축물이 만들어 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연과 도시 공존... 광주의 역사 담는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번폴리' 디자인안 발표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 건축가들 작품 선보여

역시, 세계 최고 건축가들의 눈을 사로 잡은 것은 광주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후미진 골목과 넓은 한옥이었다.

17일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어번폴리(Urban folly)' 프로젝트의 디자인 안이 공개됐다. 어번폴리는 22여명의 예산을 들어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광주읍성터, 푸른길 등 10곳에 기념할 만한 건축조형물을 세우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디자인 안은 5·18광주항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고,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색 작품이 많았다.

▲5·18 등 광주 역사 담긴 기념물=베니스비엔날레 영국관과 일본 요코하마 국제 여객터미널을 설계한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프린스턴대학 초빙교수)는 금남공원 모퉁이에 한옥의 아름다움을 펼쳐 놓았다. 안과 밖의 경계가 없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현재 공영장 위치에 한 쪽의 산수화를 그려 놓았다.

1m 안팎의 야트막한 인공 산을 만들어 차도와 인도를 나누고, 사이사이에는 나무도 심는다. 또 현재 있는 계단은 물결 형태로 변화를 줘, 산과 강물이 어우러지는 듯한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5·18민중항쟁의 주무대였던 금남로에 위치해 있는 만큼, 물결 형태의 계단을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를 표현했다. 계단에서는 사람들이 앉

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5·18의 역사는 파주출판도시 설계에 참여한 플로리안 베이겔의 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그가 맡은 서원문터(현 김재규 경찰학원 앞)에는 5·18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선다. 현재 이곳에 위치한 5·18 기념표시석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 민주주의의 등불 같은 역할을 했던 광주의 상징성을 담았다. 한국 사할 석등의 조형물을 세운 뒤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하버드대학 건축과 나더 테라리 겸임교수가 설계한 대한생명 사거리에 세워지는 작품은 5·18의 미래를 담고 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미래로 웅비하는 광주의 기상을 담아 붕과 쇠줄을 이용한 공중 조형물을 세운다. 이 조형물은 한국의 정원을 상징하며, 기둥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곁들였다.

▲세계적 작가 눈에 비친 한옥과 소쇄원=구도심의 출입구인 충장로파출소 입구에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골드라이온상을 수상한 피터 아이젠만이 옛 양반 가옥을 본 뜬 상징물을 세운다. 기둥과 칸으로 나뉘는 한옥 양식에 따라, 100칸 자리 한옥을 주제로 사각 틀을 만들어 충장로 입구를 새 단장한다. 그는 지하상가 입구의 건축물을 뜯어내고, 양반 가마에서 힌트를 얻어 물결처럼 보이는 지붕도 만든다.

그는 "이곳이 과거 시위 장소였다던 점



금남공원에 들어서는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어번폴리

과 광주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 고심했는데,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옥의 아름다움에서 답을 찾았다. 좁은 도심의 한 공간을 재해석하는 이번 작업은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경험이다"고 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시건축상을 3차례 수상한 후안 헤레로스가 맡은 장동로터리 일대에는 '작은 소쇄원'이 자리 잡는다. 계곡물을 담 밑으로 흘러보내고, 대나무 숲을 따라 집을 지은 소쇄원의 '자연과의 조화'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현재 자라고 있는 가로수를 그대로 둔 채 공중에 인공 조형물을 매달고, 밤에는 LED 조명으로 불을 밝힌다. 이곳은 아시아문화전당과 가까운 향후 사람들이 이동이 늘 것으로 보여 될 수 있는 의자도 함께 설치하고, '와이파이'를 설치해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조성룡(의재미술관 설계)씨는 황금로,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국립도서관 설계)는 남동 옛 광주시청 사거리, 프란시스코 사인(해인사 신형 도량기보 설



남동 구시청 사거리에 들어서는 도미니크 페로 어번폴리

계)는 문화전당 앞, 요시하루 츄카모토(이쿠시마 도서관 설계)는 대성학원 앞 공간을 꾸민 이색 설계안을 내었다.

또 광주세무서 앞 사거리를 꾸미는 건축가를 찾는 현상공모에서는 국내 건축가 정세훈·김세진씨가 출품한 '열린 장벽'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옛 읍성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흔적을 3m 높이의 공중에 띄워 표현한 작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50인 릴레이 기부로 고정희 시선집 만든다

내년 20주기 맞아

"너에게로 가는 / 그리움의 전깃줄에 / 나는 / 감 / 전 / 되 / 었 / 다." (고정희 '고백')
해남 출신 시인 고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내년이면 어느덧 20년이다.

시인 사후 고정희상, 고정희 청소년문학상, 고정희 기행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을 진행해온 '고정희와 친구들'이 '고정희 시선집 발간을 위한 250인 기부 릴레이'를 시작한다.

고시인은 1979년 '누가 홀로 술을 밟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지리산의 꿈', '광주의 눈물비', '모든 사라진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등 11권의 시집을 발간했지만 현재 대다수가 절판된 상태다.
내년 20주기 때 출간될 책은 640쪽 분량 2권(하드 커버)으로 만들어지며 기부금은 구

좌당 1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해남 고정희기념사업회와 시인이 생전에 활동했던 여성문화운동 모임(사)또 하나의 문화가 함께한다.
1948년 해남에서 출생한 고시인은 1975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후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으며 여성신문 초대 편집주간을 역임하는 등 여성운동가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시인은 1991년 6월 9일 지리산 등반 도중 실종됐다. 문의 02-322-794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친구들아 '미녀와 야수' 뮤지컬로 보러가자

19~20일 문예회관 대극장

어린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어린이 팬들을 찾아온다. 19~20일 오후 3시~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코스모스 초청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마법에 걸려 야수로 변해 성에 숨어 살고 있는 왕자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성에 갇힌 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티켓 가격 2만5000원. 문의 1688-382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알랭 드 보통·정이현 소설 공동 집필... 내년 출간

스위스 출신으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등을 집필한 알랭 드 보통과 '달콤한 도시'의 정이현 작가가 소설을 공동 집필한다.

출판사 문학동네의 새 임프린트인 톨 측은 "두 작가가 사랑과 결혼, 가족을 주제로 각각 경장편을 쓰고 이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출간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계약을 마쳤으며 내년 초 출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

혔다. 이번 기획은 한국과 유럽의 인기 작가가 같은 주제를 각기 다른 서사로 풀어내는 공동 작업으로 관심을 끈다.

알랭 드 보통은 수필과 소설이 결합한 에세이소설 형식의 작품을 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또 다른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27까지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i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런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한도사랑 영화시망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평양성 (12세)/글러브 (전체)	1관 라퐁젤 (전체)/생텀 (15세)	1관 아이들 (15세)
2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2관 조선명탐정 (전체)	2관 만추 (15세)
3관 만추 (15세)	3관 아이들 (15세)	3관 조선명탐정 (12세)
4관 만추 (15세)	4관 라퐁젤 (전체)/아이들 (15세)	4관 127시간 (15세)
5관 걸리버여행기 (전체)/생텀 (15세)	5관 서유기리턴즈(전체)/평양성 (12세)/글러브(전체)	5관 라퐁젤(전체)/생텀3D (15세)
6관 라퐁젤 (전체)/라퐁젤/걸리버여행기 (전체)	6관 걸리버여행기 (전체)/만추 (15세)	6관 연노운 (15세)
7관 아이들 (15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8관 127시간 (15세)	8관 연노운 (15세)/127시간 (15세)	8관 친구와연인사이 (18세)/만추 (15세)
9관 조선명탐정 (12세)	9관 조선명탐정 (12세)	9관 아이들 (15세)
10관 연노운 (15세)	10관 만추 (15세)	

상영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7941

조조 영화하면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최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련덕약국사거리 ☎ 1544-0600

MEGABOX
최고급관
1관 아이들 (15세)
2관 만추 (15세)
3관 조선명탐정 (12세)
4관 127시간 (15세)
5관 라퐁젤(전체)/생텀3D (15세)
6관 연노운 (15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8관 친구와연인사이 (18세)/만추 (15세)
9관 아이들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만추 (15세)
2관 연노운 (15세)/글러브 (전체)
3관 127시간 (15세)/평양성 (12세)
4관 라퐁젤3D (전체)/생텀3D (15세)
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6관 조선명탐정 (12세)
7관 아이들 (15세)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